

양파 도매가 반토막...시름 깊어지는 무안농민

15kg 1만 594원, 전년비 43% 폭락...출하 증가·소비위축 등 복합작용
정부 출하량 조절 실패에 수입까지...뒤늦게 긴급 수매 등 대처 나서

조생수확을 마친 양파 가격이 1년 전의 반값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양파(상품·15kg) 도매가는 이날 기준 1만 594원으로 전년 동기(1만 8616원) 대비 43.1% 급락했다. 이는 전월과 평년보다 각각 38.1%, 34.1%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양파(상품·1kg) 소매가 역시 2373원에서 1825원으로 23.1% 하락했다.

이번 양파 가격 폭락 사태는 조생양파 수확에 따른 출하량 증가 및 정부의 물량 예측 실패 및 수입,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상기후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반면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호황이었던 게 오히려 양파값 폭락의 주원인이 됐다는 게 농민들의 말이다.

현장에서는 양파 도매가격이 급락한 것과 관련해

정부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5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유관 기관들의 작황 전망이 엇갈리며 출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황순진 무안군 농민회 사무처장은 “3~5월 사이 농식품부와 KREI 등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양파 출하량 전망 및 가격 전망 등이 모두 오르락 내리락하며 일관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 3월 양파 가격이 1kg 당 1500원을 넘어선 직후 양파 수입까지 단행해 양파 가격 폭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KREI에 따르면 양파 생산량은 109만 t으로 전망된다. KREI는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1년전보다 9.2% 늘었고, 올 하반기~내년 초까지 저장하는 용도의 중만생종 양파 역시 생산량이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율관세할당 정책을 통해 양파 수입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저율

관세할당 양파 물량 2만 645 t 중 1만 645 t 이하로 수입된 게 양파 가격 급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농협 등은 지속적인 양파 가격 하락세에 뒤늦게 긴급 수매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생산량 증가분인 3만 t을 우선 수매·비축해 품위저하품 4000 t을 출하하지 않는 등 공급량 과다에 따른 가격 하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 등을 내놓고 있다.

농협도 중생종 양파 3000 t을 수매하고, 출하시기를 늦추는 한편 양파 할인 등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이 수매하는 양파 가격에 대한 농협과 농가 간 협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농협이 요구하는 가격 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민 이근균(62)씨는 “현장에서는 양파를 1kg 당 750원 이상은 받아야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향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농협에선 1kg 당 550원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1일 찾은 무안군 청계면의 한 양파밭에 수확을 앞둔 양파들이 가득하다.

전력거래소 4개 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 공동활용 데이터 분야 협력 업무협약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0일 서울시 한전아트센터에서 ‘데이터 안심구역’ 공동활용 및 에너지 기관 간 데이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5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데이터 개방 및 협업 데이터 생산, 기술 교류 등을 통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와 촉진을 목표로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계통 정보, 전력시장 정보 등 기존에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주요 데이터들을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제



공할 계획이다.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전력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뿌리산업 개선 사업’ 고용유지 성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도 효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광주시와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개선 사업’이 고용 유지와 노동자 복지 향상 효과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뿌리산업 개선 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의 인력난과 이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 안정 패키지로, 정규직 채용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복지 시설 개선, 주거비, 건강검진비 등 노동자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중 노동자 대상 주거비·건강검진비 지원 분야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주거비는 월 최대 30만원·최대 6개월까지 보장하며 건강검진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기초 제조업인 ‘뿌리산업’ 현장에서 거주 안정과 건강 관리는 장기근속 유지

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광주지역 뿌리산업은 자동차·가전·금속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수요 둔화·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뿌리기업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히 ‘사람이 안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면서 “기업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과 유관 기관 간 연계 사업 발굴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오는 8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총 홈페이지나 일자리사업부(062-716-350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순천시 승주읍 에코마켓에서 유역대표 소통 거버넌스인 ‘영·섬유업 상생협력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업 상생협력위원회’ 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는 “최근 순천시 승주읍 에코마켓에서 유역대표 소통 거버넌스인 ‘영·섬유업 상생협력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법조·언론, 시민단체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형 녹조 관리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과 ESG 경영 성과 등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또 에코마켓 운영 현황 답사, 주암댐 건설 안전성 강화 사업 현장 답사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협력위원장인 정재성 순천대 토목공학전공 교수는 “영·섬유업본부가 환경과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ESG 경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힘을 쏟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삼성페이 출근길 오류...3시간 30분만에 복구

삼성페이가 출근길 3시간 30분 동안 결제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일 삼성페이 이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3시 30분반 삼성페이 결제 및 등록 오류 등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삼성페이 앱 공지사항에 삼성페이 카드 결제 및 등록 오류 장애가 해소됐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카드 결제 및 등록 시도 시 오류가 발생하던 현상이 해소되어 정상 사용 가능하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 된다”, “아침부

터 삼성페이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 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 실물카드 쟁겨라”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3분여 동안 결제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8.97	(+1.30)
▲ 코스닥	740.29	(+5.94)
↓ 금리 (국고채 39년)	2.340	(-0.007)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73.45	(-6.65)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스테이블코인 57조원 달러 기반 비중 80% 이상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 3311억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USDC가 9조6186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 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난 뒤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한은은 USDT, USDC, 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분기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모두 증가

비은행기관 수신 1조원 이상 늘어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들의 올 1분기 중 여·수신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것을, 여신은 금융기관들이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출·투자 등의 목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분기 중 3조 8189억원 증가해 전분기(+1조 5964억원) 대비 증가폭을 확대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599억원에서 +9553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예금은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 등으로 +4654억원에서 +3502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증가로 시장성 수신이 -5253억원에서 +6052

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1조 6563억원에서 +2조 8636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탁회사 수신이 -811억원에서 +1조 2167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자산운용회사 수신도 +3083억원으로 전분기(+233억원)보다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도 +1조 3253억원으로 전분기(+1012억원) 대비 1조 2000여억원 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은 -5419억원에서 +1조 1048억원으로 증가 전환됐다. 항목별로 대기업 대출의 증가 전환과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기업대출이 +3321억원에서 +803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역시 전분기(+1609억원) 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3015억원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성 정장 할인 ‘맨즈유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8월까지 남성 패션 특별 프로모션인 ‘맨즈유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캠프리지 멤버스 매장에서는 남성 맞춤 정장 10% 할인 혜택 및 2025년 S/S 상품 20% 할인 행사를 펼친다. 또 시리즈 매장에서는 구매 금액대별 10% 할인, 지이크는 브랜드 데이 추가 10% 할인, 헨리코트에서도 시즌오프 20% 할인 및 구매 금액대별 10%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